명상 대중화 위한 지도자協 설립

조계종 포교원 명상지도자 초청 간담회서 결의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모여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지도자 간 상호 교류와 명상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단체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교명상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14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교계 불교명상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마련에 공감하고 불교명상지도자협회(가칭)을 발족했다. 회장은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이, 부회장은 인경 스님과 김재성 교수(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가 맡았으며, 기획위원 및 분과를 구성해 2015년 2월께 출범식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명상지도자들은 "내년 2월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고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명상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 불교명상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명상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간담회에서는 인경 스님이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오원명 교장(간화선 수행학교)이 '간화선 대중화와 불교명상'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인경 스님은 "명상 붐이 지속 되고 있는 반면, 기도 · 법회형 포교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이럴 때 불교계는 불교명상지도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교명상지도자를 위한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용타 · 부회장 인경 스님
조직 구성 후 내년 2월 출범
"명상 지도자 교류 확대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상설화해야"

특히 인경 스님은 불교계 불교명상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 명상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네 단계로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교명상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인경 스님이 제시한 첫 번째 단계는 불교명상지도자들의 교류 확대와 프로젝트 수주다. 명상지도자들간 상호교류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끌어올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스님은 두 번째 단계로 학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명상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통합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은 "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이다. 자격증을 각 단체별로 발급을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협회 전체적인 통합된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명상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0년 동안 지속적이고 역량 있는 지도자 배출을 위해 동국대, 승가대 등 기존의 대학들을 활용하거나 협회 자체적으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화선 수행학교 오원명 교장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고뇌를 언급하며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교장은 "한국은 일제탄압과 6 · 25 전쟁 등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앞세대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정신을 물려받아 정신적 방황으로 괴로워 한다"며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나쁜 습관 버리고 신년 준비 하세요

문화사업단, 12월 20~21일 '만나주오 템플스테이'

12월 7일까지 사전 접수

세상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다. 커피, 담배, 술, 스마트폰 그리고 업무까지. 이제는 습관을 넘어 중독이 돼버린 구속 인자들을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가 준비한 신년 준비 프로젝트를 주목해보자.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나게 되는 '만나주오(滿娜珠吾)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오는 2015년을 맞아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20~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진행된 '2030 마음 치유 템플스테이'의 시즌2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시즌1이 청년들의 마음자리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는 '위로'의 템플스테이였다면, 시즌2는 '해소'의 의미를 더해 한층 진화했다.

내용도 풍성하다. 놀이 치료, 춤 테라피 등 마음치유 명상을 통해 내면을 가다듬는 것은 물론, 미래의 나에게 전달하는 타임레터, 동지팥죽 공양, 음악과 대화가 있는 일감스님의 '만나주오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태화산의 맑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휴식은 보너스다.


지난해 진행된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시즌1 모습. 이번에 열리는 시즌2는 '해소'의 의미를 더해 한층 진화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현대인들은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저마다 '중독'의 문제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의 심신 수양을 돕는 건전한 콘텐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템플스테이를 통해 더없이 행복한 추억과 지침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나주오 템플스테이' 참가를 희망하는 20~30대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벤트 홈페이지(http://2030.templestay.com)에 신청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 확정은 12월 10일에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출판문화상에 〈미술관에 간 붓다〉

조계종, 25일 발표… 오는 12월 9일 시상식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심는사람들)가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11월 25일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내역을 발표하고 12월 9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심는사람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김성철 교수의 〈붓다의 과학이야기〉(참글세상), 성낙주 씨의 〈석굴암 법정에 서다〉(불광출판사)가 채택됐다.

〈미술관에 간 붓다〉는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책으로, 본지에 '불교와 미학'으로 연재한 내용을 더 보완해 출간한 것이다.

입선으로는 돌스튜디오의 〈10대와 통하는 사찰벽화 이야기〉, 정상교 〈도쿄대학 불교학과〉, 범일 스님 〈수트라〉, 최혜자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김병훈 〈해커붓다〉, 배종훈 〈행복한 명상 카툰〉, 고상현 〈정도전의 불교비판을 비판한다〉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올해는 특별히 학담 스님의 〈아함경〉은 특별상으로 선종됐다.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은 〈미술관에 간 붓다〉와 저자 명법 스님(사진 왼쪽). 수상작은 본지에 '불교와 미학'으로 연재한 내용을 보완해 출간한 책이다.

대상 상금은 1,000만원, 우수상은 400만원이며,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7종의 도서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출판문화상은 2014년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 51개 출판사의 총 104종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김호성(동국대 교수),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최승천(미디어붓다 선임기자), 백승권(글쓰기 강사) 씨가 맡았다. **노덕현 기자**

올바른 비구니 승가상 모색 위한 공청회 열린다

열린비구니, 12월 18일 더케이호텔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으로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와 갈등을 진행 중인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이 공청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오는 12월 18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구니 스님만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열린비구니모임 발족동기와 향후 방향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 △한국 비구니의 승가상 확립을 위한 대안 모색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열린비구니모임은 공청회 취지문에서 "열린비구니모임과 이를 지지하는 스님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1차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 비구니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이번 공청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주어사, 종교화합 성지로 만들어야"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25일 '주어사 갈등' 야단법석

가톨릭 성지화 사업 위험성 높아
주어사 역사적 다양성 인정 필요

조선 후기, 여주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주어사에서는 조선의 탄압을 피한 가톨릭 학자들이 강학과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순교했으며 이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주어사는 폐사당한다.

이런 주어사의 성지화를 사이에 두고 가톨릭계와 불교계가 맞서는 가운데 대중결사모임인 '붓다로 살자'가 주어사 성지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열었다.

'붓다로 살자'가 11월 2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개최한 야단법석에서는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장, 한상봉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주필을 비롯해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 등이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학기 신도회장은 사회 · 역사적 관점에서 주어사 복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가톨릭이 한국에 자리잡은 이면에 불교계의 포용정신이 있었다"며 "주어사 복원은 이런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도 "가톨릭 뿐만 아니라 실학자들도 사찰에서 다양한 사상을 모색했다"며 "사찰이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이 움트는 산실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한상봉 지금여기 주필은 "천진암과 주어사는 천주교에 있어 또한 천주교에 있어서 어머니 모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며 "두 성지는 불교보다 천주교에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정 공간을 선점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주필은 "다종교사회에서 한 지역을 특정성지로 만드는 것은 지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지화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현 기자도 "두 종교가 성지화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 보다 함께 소외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내면 성찰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평에서는 주어사지를 종교화합의 성지로 가꿔가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유신 붓다로살자 기획실장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일한 공간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주어사는 불교, 가톨릭, 유학의 세 종교가 함께 공존했던 곳으로 경쟁관계가 아닌 화합의 상징으로 가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법회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 5회째를 맞아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복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4월,11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여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지운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23일

종정 석월인 화남, 총무원장 법수 합장

- 동참 스님 -

●종정 월인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대종사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운 대종사
●울산광역시 종무원장 도성 스님 ●대전 종무원장 법지 스님
●재무원장 북천암 주지 무착 스님 ●총무원장 법수 스님
●총무부장 동일 스님 ●약천정사 현성 스님 ●무찰 스님
●구미 봉죽사 주지 법종 스님 ●승가사 주지 선견 스님
●성주암 주지 법등 스님 ●호봉사 불전 스님 ●약사암 혜전 스님
●천왕사 선웅 스님 ●몽불사 주지 법관스님, 총무 묘전스님
●무량사 주지 법산 스님 ●미타사 주지 원경 스님
●천태암 주지 도광 스님 ●보현사 주지 선호 스님 ●약사암 주지 정광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사서실장 무량 스님 ●보성사 주지 원명 스님
●보혜선원 주지 보혜 스님 ●영복사 주지 보현 스님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 (051)552-8554, (051)556-0278 전송: (051)556-8551